

이슈브리프 통권148호
(2019. 9.23)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남북협력

제148호

오일석 · 김호홍
신안보연구실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남북협력¹⁾

오일석 · 김호홍 (신안보연구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현황

심한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 중국, 몽골, 베트남, 북한 등 아시아 각국을 강타하고 결국 우리나라에까지 상륙하였다.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돼지 농장에서 어미 돼지 5마리가 고열로 폐사하자 2019년 9월 16일 오후 6시경 방역 당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신고를 하였다. 신고 이후 경기도 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출동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폐사한 5마리 가운데 2마리의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양성으로 폐사한 것으로 확진 · 발표하였다.

또한 연천군 백한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9월 16일 오후에 어미 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였다고 9월 17일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신고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8일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확진 · 발표하였다.

이틀 사이에 경기 북부의 두 지자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진판정이 나오면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비상체제에 돌입하였다. 아직까지 파주와 연천 지역 농장 사이에는 역학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국의 사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와 동물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 전염병으로 폐사율이 100%에 이르지만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이 열병의 원인인 바이러스는 표면에 50여종 이상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 그 구조를

1)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발생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해 주신 최인수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님, 유한상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님, 정현규 한수양돈연구소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악하기 곤란하고 숙주의 면역 기능을 파괴하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는 실정이다.

원래 아프리카 토착 풍토병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스페인을 거쳐 동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세계화의 진행과 더불어 최근에는 중국, 몽골, 베트남, 북한 등 아시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병한 이후 100만 마리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했으며 올해 안으로 1억 마리 이상을 추가 살처분 할 것으로 보인다.²⁾ 한편 중국 당국이 최대 2억 마리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³⁾ 베트남의 경우 2019년 2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최초로 발병한 이후 5개월 만에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약 284만 마리의 돼지가 폐사 또는 살처분 되었는데 이는 베트남 전체 돼지의 약 10.3%에 해당한다. 북한은 5월 31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사실을 공식 보고하였다.

유입경로

북한 접경지역인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였고 두 농장 사이의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그 유입경로를 두고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돼지 농장 종사자들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추석이후 발생했다는 사실이 그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즉, 돼지 농장 종사자들의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들이고 추석을 전후하여 인근의 외국인 노동자 특히 돼지 열병이 창궐한 중국이나 베트남 노동자들과 모임을 갖고 접촉하거나 이들 국가로부터 추석을 맞이하여 가져온 돼지고기 등을 같이 섭취하여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다음은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이다. 즉 북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발병한 멧돼지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폐사한 북한 멧돼지 사체가 9월초 태풍과 호우에 의하여 유

2) 강윤경, 아프리카 돼지 열병 공포 삼겹살 ‘금겹살’되나, Midas(2019. 6)

3) 전주(前註)

입되어 멧돼지 사체에 잠복하고 있던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도로나 하천을 지나던 사람이나 차량을 통해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아직 폐사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확한 유입경로 확인차원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지역의 멧돼지 사체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북한 멧돼지 사체에 의해 우리나라 멧돼지들이 감염될 경우 멧돼지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통제력이 상실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대응 활동과 개선 방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2주 이상 되고 외부에 노출되더라도 살아남으며 유기물에 섞이는 경우 수 주 동안 생존이 가능한 저항력이 매우 큰 바이러스이다. 특히 증상 발생 전 잠복기에 돼지 분변 등에 있던 바이러스가 차량이나 사람 또는 분변을 섭취한 동물 등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정부는 올해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자 북한으로부터의 유입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신속한 진단과 검사관 파견 및 실험실 검증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발병 의심 신고가 있는 바로 다음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어 확진 사실을 발표하고 대응 조치에 나아간 것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확정 직후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17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파주 농장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의 돼지 4,7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을 단행하였다. 정부는 또한 파주와 연천은 물론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등 6개 시군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방역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살처분과 이동 차단 및 교육·위생상태 개선 등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퇴치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이 열병이 전국적으로 창궐한 이유는 잠복기 혹은 폐사 직전

의 발병 돼지를 도축하거나 혈값에 매도하면서 이동 차단에 실패하였고, 감염된 돼지고기 잔반이나 불법축산물의 유통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구제역 대응 경험을 기초로 상당한 대응 준비를 해왔고, 살처분이나 이동 차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 확산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렇지만 멧돼지를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멧돼지의 이동 차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열병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나아가 멧돼지에 대한 관찰은 환경부가, 집돼지의 경우는 농림부가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멧돼지를 포함한 야생조수의 질병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 일원화 또는 유기적인 업무협조 시스템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각급 군부대로 하여금 비무장지대나 산악 지역의 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멧돼지 사체 발견과 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지역에 수의 장교를 배치하고 소독과 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돼지 농장의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돼지를 키우면서 직접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농장으로부터의 신속한 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증상과 관리 및 신고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의 계기

지난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자 정부는 북측에 방역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에도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과 남북 방역협력 필요성에 대한 대북 통지문을 전달하였지만 북한은 아직 답이 없는 상태이다.

전통안보와 달리 신안보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변화의 메커니즘을 초기부터 예측하기 어렵고 일국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신안보 위협은 가변성, 불확실성, 초국가성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단위 지역의 안전 문제라도 양적 점증에 따라 국가나 글로벌 차원의 안보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이슈와 만나 연계되면서 질적 변환을 통해 안보 문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아프리카의 풍토병이 유럽과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는 소지역 단위의 안전 문제가 글로벌 차원의 안보 문제로 발전하여 가변성, 불확실성 및 초국가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안보 문제의 전형(典型)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북 어느 일방이 독자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남북은 공동 대응에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남북 공동대응은 신안보 문제로서 비정치적 사안이며, 인간의 생명 및 삶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고 인도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 상황 하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우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방역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살처분에 필요한 석회는 물론 살처분 가스와 해당 장비 등의 공급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진단과 검사 및 검증을 위한 장비와 시설 및 인력의 제공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멧돼지 이동이나 관리를 위한 공동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협력을 통해 교착에 빠진 한반도 평화협력 프로세스가 진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